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1. 17.(월)  | 배포 일시 | 2022. 1. 17.(월)        |
| 담당 부서 | 부산해양경찰서<br>해양안전과 | 책임자   | 과 장 이남희 (051-664-2048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계 장 배소환 (051-664-2148) |

## 부산해경, 「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」 추진 - 국민들에게는 “바다에서 안전수칙, 일상에서 방역수칙” 준수 당부 -

부산해양경찰서(서장 이병철)는 설 명절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17일간 ‘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부산해경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정부에서 ‘사회적 거리 두기’를 연장하고, 설 연휴 고향방문이나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·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분위기에 따라 여객선, 유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은 예년과 유사(코로나 이전 대비 약 60% 감소)할 것으로 보이나, 5일간 연휴로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연안에서 낚시, 해양레저, 관광지 방문 등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또한, 겨울철 기상악화, 운항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와, 연안에서 행락객 해상추락·익수 등 연안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. 부산에서는 최근 3년 설 연휴기간 계류된 선박이 침수·침몰하거나, 항해 중인 선박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등 선박사고가 6건 발생하였고, 음주로 인한 실족, 부두 이동 중 바다로 추락하는 등 개인부주의로 인한 연안사고가 2건 발생하였다.

부산해경은 연휴 전 낚시어선과 유선장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음주운항 등 안전위협 행위에 대해 계도·홍보하는 한편,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 관광지 등 연안사고 위험구역에 대한 육·해상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.

파출소·경비함정 등 현장부서는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고, 민간해양구조대, 예인선박 등 민간세력과 지방자치단체, 유관기관과도 연휴기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, 갑작스러운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·연안사고, 해양오염과 같은 각종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.

특히, 연휴기간동안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장기계류선박, 기름·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해양오염 예방·안전관리를 요청하고, 해양오염사고 우려가 높은 주요구역은 순찰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.

또한, 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외국산 농수산물 불법유통·밀수와 원산지 허위표시, 먹거리 안전위협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와 방역물품 불법 유통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.

이병철 부산해양경찰서장은 “설 명절 바다를 찾으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와 해양사고 긴급 대비·대응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.” 며 “연휴를 보내는 국민들께서도 바다에서는 안전수칙을, 일상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.” 고 당부했다.